

日 언론 "동방신기, 사적대화 감시당해"...SM "사실무근, 흠집내기다"

입력: 2009.12.24 13:52 / 수정: 2009.12.24 16:37



東方神起に監視が！日本での工作中、私語も厳禁で緊張感たどよう現場

メンバーのうちジェジュン(23)、ユチョン(23)、ジュンス(22)の3人が韓国の所属事務所に対し訴えを起こし、その争いがいまだ解決していない東方神起。

⇒[東方神起解散危機の真相に迫る！訴えた3人の切実な事情とは？](#)

彼らが5人揃った姿は、日本でしか見られないよう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

しかし、その日本でも、**韓国の事務所から“監視役”が派遣され、訴えに参加していない2人を徹底ガード。**

3人と仕事以外の会話をしないように監視しているのだとか。

仲がいいと伝えられている5人だけに、非常に辛い状況が続いているようです…。

- ▶ **日잡지, 12월 극비 뮤비촬영 보도..."멤버간 대화 엄금"**
- ▶ **SM 측 "감시원? 사실무근"...일본 활동, SM 재팬 관리**

[나지연기자] '한류그룹' 동방신기가 전속계약 분쟁 이후 멤버간에 사적대화를 차단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일본 현지에서 제기됐다.

일본의 연예가십 주간지인 '여성자신'은 지난 22일 최근호에서 "동방신기가 법적 분쟁 이후 일본에서 활동을 하는 동안 감시원(?)에 의해 사적대화를 못나누도록 감시받고 있었다"고 일본내 연예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잡지에 따르면 동방신기는 일본 내 활동 기간 동안 서로 어울릴 수 없었다. 잡지는 "멤버 5명이 같은 분장실에 있었지만 칸막이를 쳐 3명과 2명을 따로 앉혔다"면서 "감시의 목적으로 직원이 파견된 것 같았고, 이에 멤버간은 어떤 대화도 나눌 수 없었다"고 말했다.

東方神起

“日本の兄”SAMも緊迫… 私語厳禁！監視付き！！
 “非情”PV撮影現場

잡지는 이어 지난 중순 극비리에 진행된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의 분위기도 전했다. "당시 내년 1월 27일 발매할 신곡 '브레이크 아웃(BREAK OUT)' 뮤직 비디오 촬영을 위해 극비리에 일본을 찾았지만 촬영 현장에서도 감시원이 붙어 멤버간에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동방신기의 국내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는 홍보팀 관계자는 24일 더팩트과의 전화통화에서 '여성자신'의 감시원 보도를 전형적인 흠집내기 기사라며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감시원을 붙인다는 발상 자체가 있을 수 없다. 사실무근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대해 연예계 관계자는 "컴퓨터, 휴대폰 등 정보통신 시대다. 메신저와 문자를 이용해 어떤 대화도 주고 받을 수 있다. 1990년대면 멤버의 추가 이탈을 막기위해 감시를 하겠지만 2009년이라면 감시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며 보도의 신뢰도에 의문을 품었다.

< 사진 = SM엔터테인먼트제공, '여성자신' 기사캡처 >

<관련기사>

- ▶ **동방신기, 국내 컴백 불투명...SM "3인, 활동 거부"**
- ▶ **동방신기 3인 "화장품 사업, 이미 정리"...본질은 부당한 계약 (인터뷰)**
- ▶ **SM "법원 결정 바뀔 것, 세 멤버에 동방신기 권리는 없어"**
- ▶ **동방신기 3인 "개별활동, 시기상조...본 소송 준비 예정"**

<더팩트 기자들이 풀어 놓는 취재후기 = <http://press.tf.co.kr>>

Copyright©tf.co.kr